

호남권 산업단지를 창조경제 거점기지로

심 지속성장 한계 직면한 지역산단

생기 잃은 산단에 혁신·창조생태계 구축 급하다

정부가 '창조경제 구현'을 역점 경제기조로 내놓으면서 광주·전남의 산업단지를 창조경제의 거점기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의 첨단산단 등 지역 산업단지는 제조업이 한데 밀집하는 클러스터 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역 생산 및 수출의 중심은 물론 아이디어의 산실로 변모하고 있다. 광주·전남의 산업단지가 지역 창조경제 거점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필요성과 현재의 상황, 앞으로의 변화상 등을 3회에 걸쳐 소개한다.

노후화·청년층 기피·경쟁력 추락으로 쇠퇴일로

환경 개선·업종 고도화·지역 특화로 거듭나야

26일 국내 창조경제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대전에서 전국 최초로 문을 연다. 지난 1월 박근혜 대통령이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이후 현장에서 창조경제를 향한 본격 시동이 걸린 셈이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화학 중심 수출주도형 산업에서 최근 휴대폰 및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기반으로 고도성장을 이뤘으나 새로운 성장동력 부재와, 소득 2만달러 정체현상, 고용 없는 성장, 청년실업 문제 등이 심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형 창조경제의 전략은 곧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강화 등 창조경제에 맞는

기업의 생태계 구축이라 할 수 있다. <산업단지는 지역경제의 버팀목> =기업을 든든하게 받치는 산업단지는 기업 생태계 구축의 중심적 역할을 한다. 광주 첨단·대불·군산산단 등은 지역경제의 최일선에서 버팀목이 됐다. 호남권에는 173개 산단에 7000여 개사가 밀집돼 있다. 산단의 고용 및 생산비중은 2011년 기준 광주에서만 각각 73.7%, 73.2%에 이른다. 전남은 73.5%, 92.0%에 달한다. 지역경제에서 특히 산단의 중요도가 큰 만큼, 창조경제 구현에 있어서도 산단을 빼먹고 추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즉 산단에 혁신형 창



지난 1991년 조성된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는 생산, 연구, 교육, 주거 기능을 갖춘 복합산단이며 국내 유일의 광산업클러스터다. <산업단지공단 호남본부 제공>

조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창조경제의 성과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된다. 하지만 중국의 추격과 주력산업의 경쟁력화, 소득·학력 상승에 따른 청년층의 의식변화 등으로 산단은 지속성장 거점으로서의 한계에 직면했다. 지역 산단의 경우 노후화와 안전 문제, 청년층의 산단 기피, 입주 기업 경쟁력약화·영세화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서 산단의 창의·혁신 역량도 생소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청년층 유인·특성화로 해법 찾아야>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청년층 선호공간 조성 및 경공업에서 IT로의 업종고도화를 통해 고용 및 생산을 비약적으로 증가시켰다. 1999년 594개이던 기업 수는 2012년 1만 1497개로 20배 가까이 늘었고, 고용은 3만여명에서 15만명으로 5배 가량 증가했다. 과주출판산업단지는 특성화에 성공한 경우다.출판특화단지로 집적화에 성공한 뒤 2002년 75

여명의 생산액은 2012년 1.7조원으로 229배나 뛰어올랐다. 지역 산단도 이제 창조경제에 걸맞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해 정부 부처는 창조경제에 맞는 산단의 비전을 '청년고용을 창출하는 창의·혁신공간'으로 정했다. 우선 산단환경을 개선하고, 청년인재를 유인한 뒤 첨단기업 집적화, 창의·혁신역량을 집적화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의 경우 광산업과 정보가전, 자동차부품, 디자인·문화 등이 특성화 대상이 될 수 있다. 전남은 생물과 신소재조선, 물류, 문화관광을 주요 자원으로 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다. 청년층에 맞는 생활환경 개선도 중요하다. 지난 12일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지역본부가 건물 내에 '행복한 산업단지 문화센터'를 열고, 입주 기업 임직원에게 문화예술강연을 시작한 것도 산단의 한 변화다.

평동산단에 입주한 디케이산업의 김보근 대표는 "입주 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와 더불어 창조경제에 맞는 융통성 있는 정책이 산단 변화의 시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산업 공동브랜드 '럭스코' 공공조달시장 판로개척 박차



한국광산업진흥회(회장 이재형)가 광산업공동브랜드인 '럭스코'(LUXKO) 브랜드의 공공시장 판로개척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산업공동브랜드 대표법인인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지난 21일 서울 용산 ITX 회의실에서 참여업체 간 회의를 열고, 조달청에서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된 럭스코 브랜드를 더욱 공격적으로 마케팅하기로 했다.

럭스코는 광산업진흥회 인증회사 21개사가 참여하며 LED보안등(대진디엠피·에이팩·케이엘텍·이노셀코리아·프로맥엘이디·에이팩스인텍), LED가로등(대진디엠피·한동테크·이노셀코리아·케이엘텍·프로맥엘이디·더블유케이), LED실내조명

(해성엘앤엠·대진디엠피·한동테크·더선테크·유앙라이팅·프로맥엘이디·NLT테크), LED투광등(명신전자·프로맥엘이디·오디텍·더좋은생활·스타넷·에이팩),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이어존·이슬정보통신·컴박스테크놀로지·오맥스·대우디스플레이) 등의 대표 브랜드이다. 럭스코 제품은 조달청을 통해 수의계약이 가능, 올해 이미 2억 3000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조달청 한국광산업진흥회 상정된 럭스코 브랜드를 더욱 공격적으로 마케팅하기로 했다. 럭스코는 광산업진흥회 인증회사 21개사가 참여하며 LED보안등(대진디엠피·에이팩·케이엘텍·이노셀코리아·프로맥엘이디·에이팩스인텍), LED가로등(대진디엠피·한동테크·이노셀코리아·케이엘텍·프로맥엘이디·더블유케이), LED실내조명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현대·기아차 협력사 채용박람회

370여사 참여 개막 행사

내달 9일 광주서도 개최

현대·기아차가 25일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에서 협력사와 취업 준비생을 연결하는 '2014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사 채용박람회' 개막행사를 가졌다. 올해로 3회째인 이번 행사에는 현대·기아차와 거래하는 370여 개사가 참여했다. 2012년 1회 행사에는 1차 협력사들만 참여했으나 이후 범위를 넓혀 올해에는 2·3차 협력사와 설비 및 원·부자재 업체까지 인재 채용에 나섰다. 채용박람회는 26일까지 서울 및 수도권을 대상으로 열리고, 호남권 박람회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4월9일에 진행된다. 현대·기아차 1차 협력사들은 이번

행사 등을 통해 올해 신규 인력 1만 70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행사의 전 부문을 지원하는 현대·기아차는 이날 취업 상담을 진행하는 채용상담관과 동반성장 정책을 알리는 홍보관, 면접 컨설팅을 해 주는 부대행사관 등을 운영하면서 협력사들의 채용을 돕게 된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협력사 채용박람회 등 현대·기아차의 인지도를 활용한 협력사들의 우수 인재 채용이 결실을 맺고 있다"며 "올해 행사는 협력사 채용박람회는 물론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해, 박람회라는 1회성 행사를 넘어 협력사들이 언제라도 필요한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닦는 데 더욱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25일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현대·기아자동차의 '2014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사 채용박람회'에서 행사장을 찾은 취업 준비생들이 곳곳에서 취업상담을 하고 있다. <기아차 제공>

▼ 코스피지수	▼ 코스닥지수	▼ 금리(국고채 3년)	▲ 원·달러 환율
1941.25 (-4.30)	539.05 (-6.55)	2.88% (-0.01)	1079.40원 (+1.60)

광주시-디자인센터 광주디자인포럼

광주시와 (재)광주디자인센터가 26일 광주도시철도공사 대강당에서 제2회 광주디자인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디자인포럼은 지역 대학·디자인계·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디자인 전략(역사(驛舍)를 중심으로)'을 주제로 진행된다. 포럼은 조용준 조선대 명예교수의

'도시철도와 공공디자인'에 대한 기조연설에 이어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역사디자인 전략'에 대한 주제발표, 토론 등의 순서로 이어진다. 장상근 광주디자인센터 원장은 "광주만의 차별화된 도시철도 역사 디자인 연구개발을 위해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전남 생태체험 관광상품 개발 서둘러야"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박재순 위원장 초청 특강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행운)는 25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박재순(사진) 국제관계수위원회(ICID)광주총회 공동조직위원장(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초청해 '어촌수산분야 발전방안과 농어촌공사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전남본부와 지사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특강에서 박 위원장은 "농어촌 자원은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블루오션인 만큼 농어촌공사가 어촌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역주민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역 특색을 살린 특화

어촌과 열린공동체 형식의 어촌개발 방식의 상향식 발전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은 전국 섬의 61%, 해안의 47%, 갯벌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관광 휴양산업의 보고"라며 "생태체험형 관광상품화 추진 등 전남이 가진 강점을 극대화 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골프, 등산, 술... 이제 걱정 끝!!!

지친 당신에게 권합니다.

3월 출시

제품명 : 간만에 식물의유형 : 다류역사차 원재료명 및 함량 : 황칠추출물(100%)
 제조원 : 황칠다남(주) 판매원 : 황칠나라 전남 진흥군 정흥읍 해곡리 651-3 고객센터 : 061864-5788 부경 불랑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제품, 판매처는 고객센터 문의 및 홈페이지 참조

고객센터 **061 864 5788**
www.hcnara.co.kr